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전화 : 86-10-6505-2671/3
 이메일 : beijingk@kita.net

1 中, 10월 화물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 5% 성장

- 중국 외환관리국에 따르면 올해 10월 중국의 화물과 서비스 수출입 규모는 전년 동기대비 5% 성장한 3조 8,470억 위안(한화 약 711조 원)으로 집계됨
- 이 중 화물 수출은 1조 9,190억 위안(약 355조 원), 수입은 1억 5,102억 위안(약 279조 원)이고, 서비스 수출은 1,806억 위안(약 33조 원), 수입은 2,373억 위안(약 44조 원)임
- 서비스무역 업종별 수출입 규모를 보면 운송서비스 수출입은 1,599억 위안(약 30조 원), 비즈니스 서비스 수출입은 744억 위안(약 14조 원), 관광서비스 수출입은 658억 위안(약 12조 원), 통신·IT서비스 수출입은 472억 위안(약 9조 원)으로 집계됨
- 중국 정부의 대외무역 안정적인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조치 실시로 화물 및 서비스 수출입 규모는 안정적인 성장세이며, IT 서비스 등의 신산업 서비스업이 서비스무역에 발전에 새로운 동력을 부여하고 있음

자료원 : 인민일보
<https://m.gmw.cn/baijia/2022-11/26/36189700.html>

2 中, 부동산시장 부양 위한 금융지원 강화

- 중국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은보감회)에 따르면 올해 1~10월 부동산 개발업체의 대출규모는 2조 6,400억 위안(약 489조 원), 주택 담보대출 규모는 4조 8,400억 위안(약 896조 원)으로 은행업은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과감한 금융지원을 제공하였음
- 최근 인민은행과 은보감회는 공동으로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에 관한 통지'를 발표하였으며, 대형 은행들은 우수 부동산 기업 대상으로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 중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부동산 기업에 대출을 제공할 예정임

- 농업은행은 5개 부동산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개시하였으며, 건설은행도 11월 8일자로 300억 위안(약 5.6조 원) 규모의 펀드를 설립하고 100억 위안(약 1.9조 원) 규모의 20여 개 프로젝트를 중점 추진할 계획을 발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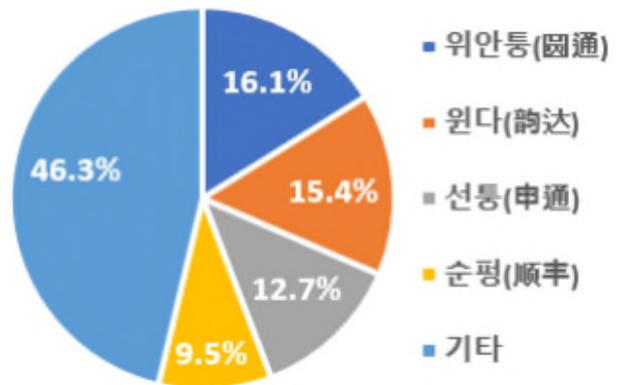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jjckb.cn/2022-11/25/c_1310679634.htm

3 中, 1~10월 택배 수입 전년 동기대비 3% 증가

■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10월 누적 택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3.0% 증가한 8,591억 위안(약 163조 원)이며, 이 중 10월 당월 택배 수입은 0.7% 감소한 902억 위안(약 17억 원), 평균 단가는 9.15위안(약 1,73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0.2% 증가함

- 올해 10월 택배업체 시장점유율 순 위안통(圆通) 16.1%, 원다(韵达) 15.4%, 선통(申通) 12.7%, 순핑(顺丰) 9.5%로 나타남.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위안통 택배의 경우 10월 택배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10.9% 증가한 40억 위안(약 7,565억 원), 택배 업무량은 0.5% 증가한 15.8억 건, 택배 단가는 10.3% 증가한 2.52위안(약 477원)임



- 저상증권(浙商证券)은 온라인 쇼핑의 인기와 전자상거래업체의 재고해소를 위한 수요로 인해 향후 택배업무량은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ce.cn/cyssc/jtys/zhwl/202211/23/t20221123_38245892.shtml

4 中 광둥·지린 등지, 수소에너지차 산업 적극 발전지원

■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광둥성 포산시에서 제6회 중국(포산) 국제수소에너지 및 연료배터리 기술 및 제품전시회가 개최되었음. 현재 광둥성은 전략적 신산업 발전기회를 모색하면서 수소에너지 응용 시범기지 사업을 적극 전개하고 있으며, 광저우시 황푸구(黄埔区)와 개발구는 수소연료배터리 자동차 전반 산업체인을 구축하였음

- 10월 25일 현대자동차수소연료배터리시스템(광저우)유한회사(HTWO 광저우)와 광저우형원(恒运)그룹, 광저우개발구교통투자그룹 등은 수소에너지 합자회사를 설립하였음. 'HTWO 광저우' 공장은 올해 연말 준공 및 가동할 예정으로 면적은 20.2만 평방미터이고 수소연료배터리 시스템 생산공장, R&D센터, 혁신센터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의 첫 해외 수소연료배터리 시스템 생산, 연구개발, 판매기지로 부상할 전망이다
- 2021년 광둥성은 중국내 첫 번째 연료배터리 자동차 시범도시군 중 하나로 선정되었고 2022년 8월 '광둥성 연료배터리 자동차 시범도시군 건설 가속화 계획(2022~2025년)' 발표를 통해 2025년까지 연료배터리 자동차 1만 대를 보급, 수소에너지 10만 톤을 공급하며 수소충전소 200개를 건설할 계획을 밝힘
- 광둥, 포산, 선전, 윈푸, 둥관 등 도시는 상호 협력을 통하여 수소에너지 산업 발전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선전시에서는 70여개 혁신기업과 연구기관이 수소에너지 기술과 제품 연구 개발에 종사하며, 2025년 선전시의 수소에너지 산업규모는 500억 위안(약 9조원)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지린성도 '수소에너지 산업발전 중장기계획(2021~2025년)'을 발표하고 2025년까지 연료배터리 차량 보유량을 5만 대로 늘리고 수소충전소 건설을 가속화할 계획을 밝힘
- 중국자동차공업협회에 따르면 올해 1~8월 연료배터리 자동차 판매량은 2,000대로 전년 동기대비 1.6배 증가하였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ce.cn/cyssc/ny/gdxw/202211/18/t20221118_38236845.shtml

5 中, 신에너지차 판매가 하락세...2023년 판매량 900만 대 예상

- 최근 중국내 테슬라, 포드, AITO, 벤츠 등 신에너지차 생산업체가 판매가를 낮추는 추세로 포드는 Mustang Mach-E 시리즈 차량 판매가를 최저 2만 위안(한화 약 378만 원) 인하했고 AITO는 8,000위안(약 151만 원)의 보험료 뿐만 아니라 3만 위안(약 567만 원)의 종합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음. 11월 16일 벤츠는 산하의 일부 EQ 시리즈 판매가를 5~23만 위안(약 945~4,348만 원) 사이로 인하시켰음
- 2020년부터 원재료 가격 상승과 칩 부족 등 원인으로 신에너지차 가격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으며, 이번 생산업체의 가격 조정은 소비자가 신에너지차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 신에너지차 가성비 우위를 제고하여 소비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됨

- 신에너지차 배터리는 전체 차량 원가의 40%를 차지하므로 기존 리튬배터리 산업망·공급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1월 18일자로 중국공업정보화부와 시장감독관리총국은 '리튬배터리 산업망·공급망 협동 안정적 발전 관련 통지' 발표를 통하여 리튬배터리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추진할 것을 제기하였음
- 올해 1~10월 중국의 신에너지차 판매량은 전년 동기대비 1.1배 증가한 528만 대, 10월 말 기준 신에너지차 침투율은 24%로, 올해 전년 판매량은 600만 대를 돌파할 전망이며, 중신증권(中信証券)은 2023년 중국의 신에너지 자동차 판매량을 전년 대비 31% 증가한 900만 대로 예상하였음

자료원 : 중국소비자신문, 재경망

http://www.ce.cn/cysec/ny/gdxw/202211/23/t20221123_38246053.shtml

<http://auto.caijing.com.cn/2022/1122/4901912.shtml>

6 장쑤성 타이저우시,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수출 전년 동기대비 700% 급증

- 유럽 지역의 에너지 공급 긴장이 지속되고 전기요금이 상승하자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였으며 중국내 관련 업체 수출이 대폭 증가함
- 장쑤성 타이저우시(泰州) 해관 통계에 따르면 올해 타이저우 지역의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700% 폭증하였음
- 가정용 에너지 저장장치는 대형 배터리 충전기로 볼 수 있으며, 타이저우시 모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최대 14도의 전기를 저장하여 냉장고 반달 전기를 공급 가능함. 당사는 임직원 수를 지난해 한자리 수에서 현재 20여 명으로 늘렸으나 여전히 생산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2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음

자료원 : CCTV 재경

<https://finance.eastmoney.com/a/202211222567644760.html>

7 바이두 개발 시로봇, 2분기 AI 스피커·스크린 출하량 중국 국내 1위 달성

- IDC, Strategy Analytics, Canalys에 따르면 바이두그룹 산하의 샤오두(小度, 바이두가 개발한 AI 로봇)의 올해 2분기 AI 스피커·스크린 출하량이 중국내 1위를 기록함

- 교육 분야에서도 샤오두의 학습기, 학습용 태블릿 PC의 시장점유율이 중국내 1위를 달성
- 샤오두는 스마트홈, 스마트호텔 관련 사업도 적극 추진 중으로 3만개의 호텔과 협력을 개시 하였으며 샤오두 스마트 음성서비스 앱을 설치한 호텔방은 55만 개, 서비스를 제공한 고객 수는 1억 6,000만 명에 달했음



▲샤오두(小度) 제품사진

자료원 : 36kr

<https://36kr.com/newsflashes/2012675855803783>

8 中,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국산화 진척 가속화

■ 최근 중국내 제약업체, 유제품업체 모두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연구개발에 뛰어들고 있으며, 지난 11월 19일 중국의약신문정보협회 특수식품분회 설립대회 및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산업 고도화 발전 세미나'가 베이징시에서 개최되었음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 음식물 섭취 제한, 소화 흡수 장애, 대사교란 혹은 특정 질병 환자의 영양소 혹은 식사 수요 만족을 위하여 전문적으로 가공 및 조제한 식품

- 2021년 말까지 36개 기업이 총 81종의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을 등록했으며, 이 중 중국 회사가 29개사임. 또한 2021년 신규 등록한 24종의 제품과 2022년 9월까지 등록한 7종의 제품 모두 중국회사 제품으로 나타남
- 2021년 7월 기준 중국내 특수의학용도 조제식품 관련업체는 954개로 기존 등록된 제품들은 영유아용 제품과 기술 난이도가 낮은 제품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됨

자료원 : 중국경제망

http://www.ce.cn/cysc/yy/hydt/202211/24/t20221124_38249539.shtml

9 장쑤성 옌청(盐城)시, 한국 기업투자 1천여개사 유치

- 지난 11월 18일 제4회 한중무역투자박람회가 한중(옌청)산업단지에서 개막하였으며 총투자 규모 473억 위안(약 9조원)의 프로젝트 계약 21건을 체결함. 이 중 외자기업 프로젝트가 12건으로 투자액은 18억 2,500만 달러(약 2.5조원)으로 집계됨
- 동 박람회는 2019년부터 개최되어 지난 3회에 거쳐 무역 거래액 55.5억 달러, 산업 프로젝트 계약 191건을 체결하여 누적 투자규모가 2,300억 위안(한화 약 44조 원)에 근접하였음
- 현재 장쑤성 옌청시에는 한국 투자기업 1,000여개가 누적 130억 달러를 투자함. 옌청시는 기아자동차의 유일한 중국 국내 생산기지로 누적 자동차 판매량 600만 대, 매출이 6,000억 위안(약 114조원)을 넘어섰으며 중국 공장에서 생산한 제품은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지로 수출 중임. 한편 SK 전기차 배터리 프로젝트는 최근 옌청시에서 유치한 최대 외자 프로젝트로 1기, 2기 프로젝트가 이번 박람회 기간 계약을 체결했으며, 2기 프로젝트는 최근 5년간 장쑤성의 최대 한국기업 투자유치 프로젝트임
-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이자 한중(옌청)산업단지가 설립된지 5주년이 되는 해임. 지난 5년간 한중(옌청)산업단지에서 유치한 한국기업 투자 프로젝트는 114건에 달하며, 한국과의 수출입은 85억 달러를 달성하는 등 빛나는 실적을 이룩하였음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news.10jqka.com.cn/20221122/c643083614.shtml>

10 中, RCEP 협정 통한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 도모

- 중국(하이난)개혁발전연구원은 RCEP활용 공급망 안정, 산업 협력, 서비스 분야 한중일 경제무역 협력 방안을 제시하였음
- (공급망) △RCEP 원산지 누적 규정을 통해 동아시아 공급망을 구축하고, 한중일 3국의 투자무역 자유화 수준을 제고하여 동아시아 공급망 협력의 제도적 비용 감소 △한·일 연구개발, 중국 제조, 아세안 조립 등의 융합 추진 △RCEP 조항을 활용하여 3국은 동남아시아 시장을 공동 개발하고 공급망 분야에서 한중일 3국이 RCEP 기타 회원국의 공동 발전을 이끄는 새로운 국면을 조성

- **(산업협력)** △중국이 서비스업 분야의 심층 개방을 추진하여 3국의 산업 협력에 거대한 시장을 마련 △3국의 생산성 서비스업 협력과 기술협력을 강화 △신산업 협력을 강화하고 혁신으로부터 산업화, 규모화에 이르는 신산업 협력방식을 모색하여 동아시아 신산업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향후 10~15년 중국의 산업구조 전환은 거대한 신규 시장을 조성하고 한중을 3국과 RCEP 지역간 산업협력 가능성이 커질 전망
- **(다양한 형태의 지방협력)** △중국 동북지역을 중요한 기점으로 한중일 제조업산업연맹을 건설하고 제조업 분야 기계생산, 기술서비스 등의 자유무역 정책과 기술자 지역 간 이동 정책 등의 실시를 촉진 △동북, 산둥 등지에서 첨단제조업, 차세대 정보기술, 신에너지차, 바이오 의약 등 첨단제조업과 산업디자인 등 현대서비스업을 집중 발전시켜 한중일 지방간 경제무역 협력시범구를 건설 △하이난성과 제주도 등지의 관광협력을 추진하고, 크루즈관광, 문화관광, 헬스·레저 및 국제관광 공동 마케팅 등 방면에서 협력을 도모해야 함

자료원 : 경제참고보

http://www.ijckb.cn/2022-11/22/c_1310678703.htm